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월간소식지

창조

발행일 2011년 9월 8일 (목)

발행인 성영관 편집 김종성

주 소 (700-821) 대구 중구 동산동 234

전 화 070-4095-6420

홈페이지 <http://creation21.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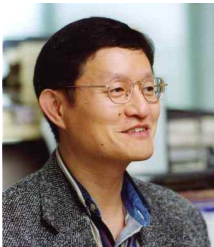
I 이달의 소식

- | | |
|-----------------|----|
| 1. 모임안내 | 1쪽 |
| 2. 대구지부/ 전시관 사역 | 2쪽 |
| 3. 대구지부 기본과정 안내 | 3쪽 |

II 내용

- | | |
|---|-----|
| 1. 노아의 홍수 (49) 침식유희? - 이재만 | 4쪽 |
| 2. Victor's Bible Journey (28) 불타는 떨기나무 - 이종현 | 6쪽 |
| 3.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14)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 김무현 | 8쪽 |
| 4. 신들의 땅, 인도에서 창조주를 외치다 -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 11쪽 |
| 5. 새로 바라본 그랜드캐니언 (32) -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역 | 15쪽 |

인사말



지난 8월에 2주간 인도로 창조과학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더위와 생활의 불편은 겪었지만, 창조과학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기회였습니다. 강연은 주로 교회와 신학교에서 이루어졌는데, 인도에 계시는 한인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에 있어서 창조과학의 필요성에 대한 임팩트를 주었을 뿐 아니라, 인도에 유학 와 있는 무슬림 형제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프란시스 웨퍼는 나에게 전도할 1시간의 시간을 준다면 55분은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고 나머지 5분은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겠다고 한 말의 의미처럼,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는 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창조과학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창조과학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연구위원 이 종 현 올림 -

1. 모임 안내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전시관에서는 9월 1일(목)부터 창조과학 기본과정(매주 목요일-5주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본과정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가지는 가운데, 상호교제를 통해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9월 15일 기본과정 강연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강사: 임진규 교수(경북대학교)

박종환 박사 (경북대학교 중등연수원)

일시: 2011년 9월 15일(목) 7:20pm

장소: 창조과학회 대구전시관

제목: “사람-하나님의 슈퍼 걸작품”

“한자와 창세기”

문의: ☎ 070-4095-6420



대구전시관 오시는 길

070-4095-6420
대구전시관(수도빌딩 2층)

남부경찰서

123노인요양
복지센터

1호선 영대병원역
1번출구

현충로역

명덕시장 네거리

영대병원 네거리

대구 남구 대명5동 207-1번지
수도빌딩 2층 (705-802)

2.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 전시관 사역

8월 20(토)-21일(주일)엔 범어교회 유년부(초등 1-2학년)를 대상으로 “신기하고 오묘한 인체” (실험카페 2차시)와 “공룡이 사람과 함께 살았을까” (실험카페 4차시)에 대해서 김종성·최송화 선생



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특별히 유경이(중 2)와 호연이(초등 5)도 와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호연이의 춤추는 로봇쇼는 대 인기였습니다.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틀에 걸쳐서 2가지 주제를 아이들과 섬기는 선생님들이 다 접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주님 안에서 유익하고 통쾌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7(토)일엔 부산 신암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서성민 전도사님과 함께 전시관을 방문해서 “교과서 바로보기”란 제목으로 창조과학 강연을 1시간 넘게 경청한 후 전시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동영상(홍수 지질학)을 본 후 실험카페 4차시의 실물화석 발굴 활동 시간도 가졌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로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나누려고 하니 쉽지 않았는데, 교회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성경에 기초를 둔 창조과학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온 열방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무장되어 주님의 기쁨의 자녀로 자라가기를 간구합니다.

8월 7일(주일)엔 권진혁 선생님께서 서대구교회 중고등부 헌신예배 시간에 “젊은 지구”라는 제목으로 섬겨주셨고, 21일(주일)엔 동부교회에서 김종성 선생님께서 “창세기 1장 이야기” 및 “실물 규화목 화석”을 보여주시면서 유쾌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2일(월)엔 대한신학교에서 이종현 선생님께서 “성경고고학 2”라는 제목으로, 30일(화)엔 창조과학회 부산지부 심화과정에서 권진혁 선생님께서 “우주의 나이 146억년?”이란 제목으로 창조과학특강을 해 주셨습니다.

이 땅과 온 열방에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과 사랑이 충만히 흘러 넘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



♫ 창조과학 기본과정



- 일정 : 2011년 10월 20일 - 11월 17일 (목)

오후 7:20 - 9:30

- 장소 :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전시관

- 특전 : 심화 과정, 강사과정 수강 자격 부여

- 등록비 : 5만원

(10월 14일 전 입금 후 등록 시, 그 이후 6만원)

- 문의 : ☎ 070-4095-6420

<http://creation21.or.kr>

(우체국: 703520-01-002334, 창조과학회)

※ 목적 : 그룹별 성경공부 등에서 복음 전도의 강력한 도구인 창조과학을 가르칠 수 있다.

※ 수료 : 한국창조과학회 회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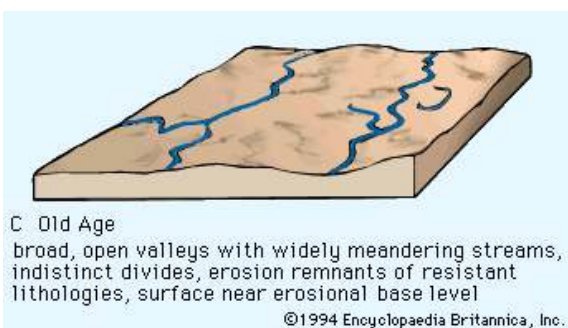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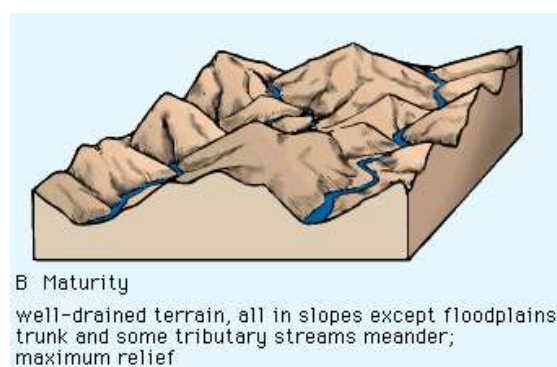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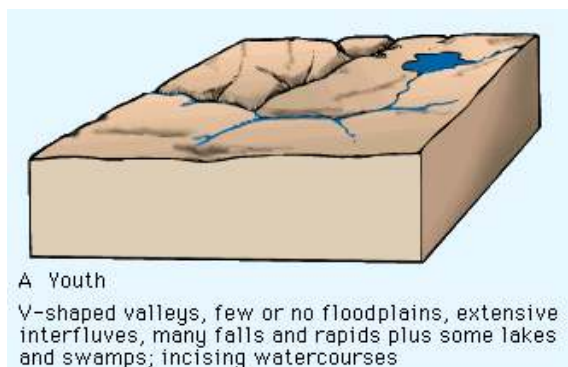
(단 4주 이상 참석하고 수강 소감문 혹은

창조과학 관련 자료 감상문을 제출하신 분)



유년기, 장년기, 노년기?

“150일 후에 감하고” (창 8:2c)



<그림> 데이비스가 제안한 침식윤회의 모습
(출처:

<http://www.britannica.com/EBchecked/topic/134929/continental-landform/49822/The-geomorphic-concepts-of-Penck-and-King>)

산이나 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많이 사용되었던 용어가 침식윤회(cycle of erosion, 浸蝕輪廻) 혹은 지형윤회(geomorphic cycle)이다. 소위 말해 지형은 원지형의 침식이 진행되면서, 유년기, 장년기, 노년기, 준평원이라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림). 처음의 지형이 유수에 의해서 점점 침식되어 그랜드캐니언 같이 강폭은 좁고 고지는 평탄한 유년기(the stage called "youth")를 거치고, 이어서 설악산같이 뾰족뾰족한 장년기("maturity")에 이어, 더욱 침식이 진행되어 날이 무더진 둥글둥글한 산의 모양을 보여주는 노년기("old age") 지형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처음 원지형의 모습과 같은 준평원으로 돌아와 다시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침식윤회는 1909년 데이비스(W. M. Davis)에 의해 발표되어 일반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만, 지형이 이러한 윤회를 보여준다고 믿는 오늘날의 지질학자들은 거의 없다. 이전 칼럼에서 여러 번 언급하였듯이 지형형성에 대한 실험을 하게 되면 지금의 지형은 언젠가 만들어진 후 그 기본적인 모습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이 침식윤회는 지질학의 동일과정설과 진화론이 절묘하게 만들어놓은 대표적인 가설이라 할 수 있다.

동일과정설이란 지질학적 과정이 오늘날에 일어나는 속도로 과거에도 동일하게 일어났었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면 오늘날 산에 침식이 천천히 일어났으므로 과거에도 동일하게 천천히 일어났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실험을 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하였으며, 실험의 결과들은 과거에 지질학적 과정은 오늘날과 다른 격변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데이비스가 말하는 유년기 지형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역들이 있다. 그리고 장년기의 특징을 보여주는 지역들도 있으며, 노년기의 산 모양을 보여주는 곳들도 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유년기를 거쳐 장년기와 노년기로 변하는 것이 관찰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더욱이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유년기의 모습은 언젠가 만들어진 이래로 그 모습을 유지해왔으며, 장년기나 노년기도 형성되었던 그대로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침식윤회는 진화론에 영향을 받은 동일과정설로 지형을 설명한 것이다. 진화론은 생물의 종류--종(species; 생물학적 분류단위)의 개념과는 다를 수 있다--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한 생명체의 종류가 다른 종류로 진화하는 것이 관찰된 경우도 실험에 성공한 적도 없다. 진달래, 개, 고양이, 코끼리, 참새 등 그 각각의 종 안에서만 다양하게 변하는 변이만 일어날 뿐이다. 바로 침식윤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우리는 유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지칭하는 산들의 모양은 볼 수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관찰한 적도 없으며, 실험을 실시하면 언젠가 이들의 모양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기본적인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 지질학자들이 침식윤회의 용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침식윤회를 거쳐 왔다는 과정의 개념보다는 그 지형의 모양의 개념으로만 사용한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산의 모양은 언젠가 강력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빠른 속도의 침식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지구전체를 덮었던 수 km(평균 2,590m)의 물이 빠른 속도로 바다로 빠져나가며 형성되었다는 노아홍수 후기의 모습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참조:

1. 퇴적 지층 사이의 간격들 2

<http://www.creation.or.kr/library/itemview.asp?no=552>

2. 침식 되고 있는 연대들

<http://www.creation.or.kr/library/itemview.asp?no=1554>

출처: <http://www.hisark.com> **참조**

불타는 떨기나무 (The Burning Bush - Exodus 3:1-4:17)

히브리 노예의 가정에서 태어난 모세는 다른 모든 히브리인 남자 아이처럼 죽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를 광주리 안에 숨겨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는데, 파라오의 딸이 그를 발견하고 양자로 삼았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왕자로 자라났는데, 이집트인 공사감독이 히브리인 노예를 때리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이고 말았다. 모세는 두려워서 미디안으로 도망하였으며, 거기서 목동이며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했다. 그리고서 모세는 목동이 되어서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그것은 불타는 떨기나무였는데 결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시내산

모세는 목동으로서, 미디안 땅 내부와 주변에서 좋은 목초지를 찾아 광야를 돌아다녔다. 모세가 자기 양떼를 위해 방목하기에 좋은 장소를 찾는 동안, 그는 시내산(Mount Sinai)에 도달했는데, 그곳을 어떤 때는 호렙산(Mount Horeb)이라고도 불렀다. 여기 불타는 떨기나무 옆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이집트로 돌아가 히브리인 노예들을 자유롭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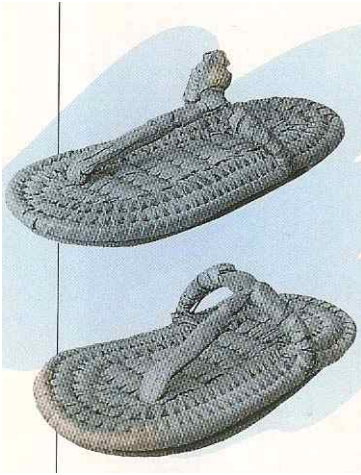
시내산은 아마도 미디안 땅 밖에 있었을 것이다. 많은 목동들이 자기들의 양떼와 소떼를 위해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광야를 몇 주 동안 돌아다닌다. 모세도 이렇게 하다가 시내산에 도달했을 것이다.

시나이라고 불리는 산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전통에 의하면 그것은 오늘날 여벨 무사(Jebel Musa, 모세의 산)라고 부르는 산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산은 수에즈만과 아카바만 사이에 있는, 홍해의 정 북쪽에 위치한, 시나이 반도의 남쪽 끝에 있다.

그 산은 황폐하고 바위투성이이며, 가파르고, 삭막하고 힘든 지형의 한 가운데 놓여있다. 여벨 무사의 경사 옆에 성 캐더린이라는 수도원이 전통적으로 불타는 떨기나무의 위치라고 알려진 곳에 지어져 있다. 훌륭한 등반가라면 거기서부터 산 정상까지 한 시간 반이면 오를 수 있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떠난 후에 그들은 시내산에 머물렀었다(출 19:1-2, 18). 모세는 그 산에 올라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다(출 19:20). 수백년 후에 엘리야는 시내산을 찾아갔고 거기서 하나님은 그를 격려했다(왕상 19:8-18).

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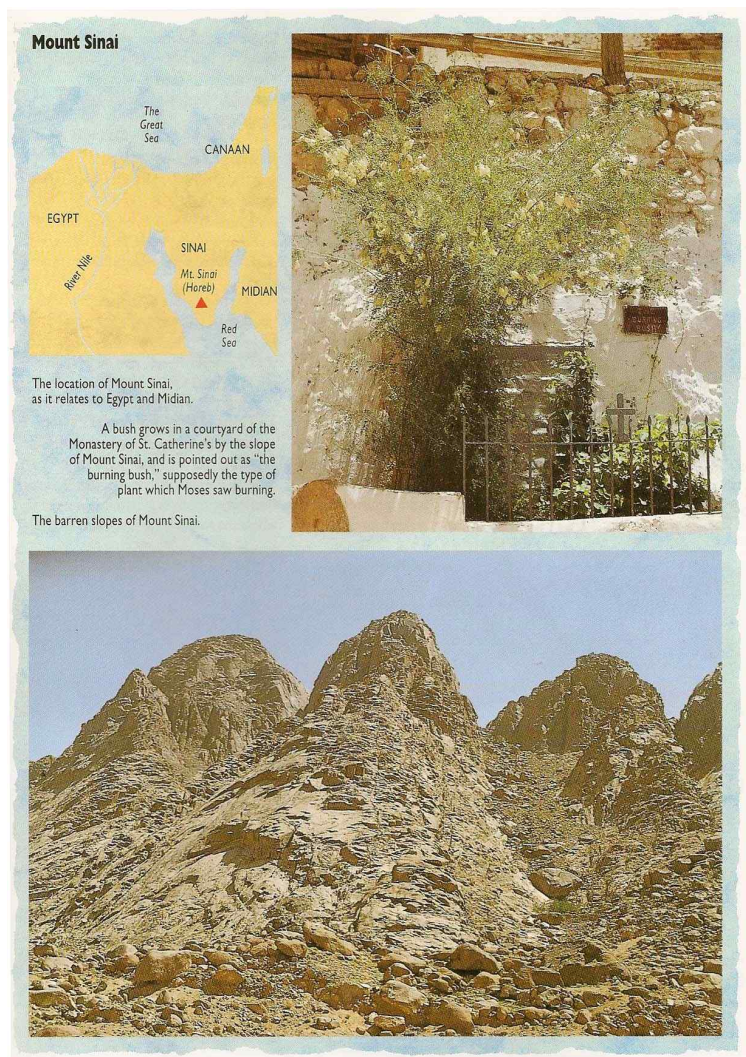


<모세가 떨기나무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명하셨으므로 그는 샌들을 벗었다. 모세 시대의 이러한 이집트인 샌들은 파피루스, 야자 잎, 그리고 풀들로 짚다.>

구약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맨발이었으므로 샌들은 종종 사치품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장거리를 여행하거나, 돌이 많은 지형을 걸을 때 샌들은 도움이 되었다.

이집트인 샌들은 갈대, 파피루스 혹은 가죽으로 만들었다. 다른 샌들은 나무 혹은 가죽으로 된 바닥에다가, 샌들이 제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 발가락과 발목 주위를 감싸는 가죽 끈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 사람들이 집이나 예배장소에 들어갈 때 그들은 일반적으로 모자를 벗는다. 성경 시대에는 샌들을 벗었다. 예배드리는 장소에서는 그것이 존경의 표시였다. 길은 뜨겁고 먼지가 많았으므로, 손님의 더러운 샌들을 벗기고 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주인이 손님으로 하여금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길이었다. **참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어떠한 자세로 읽을 것인가?

II-1.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God-Breathed Words); 어떠한 자세로 읽을 것인가?

성경은 성령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영적인 책이므로 신문이나 소설 읽듯이 읽는다면 은혜나 깊은 깨달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비판하려 들지 말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사무엘상 3:9)”고 말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읽으셔야 합니다. 또한 실제의 삶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더 큰 감동과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같은 구절이라도 읽을 때마다 다른 적용과 감동을 주십니다. 주위에서 성경을 몇 번 통독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번 읽었느냐가 아니고 묵상 중에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와 대화를 나누었고 성령님의 조명으로 깊은 깨달음을 받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세계관과 인생관이 성경적으로 점차 바뀌어가며 우리의 인격과 삶이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 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시편 119:48)

And I shall lift up my hands to Your commandments, Which I love; And I will meditate on Your statutes. - Ps 119:48, NASB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히 끝없이 지키리이다. (시편 119:43-44)

And do not take the word of truth utterly out of my mouth, For I wait for Your ordinances. So I will keep Your law continually, Forever and ever. - Ps 119:43-44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일서 5:7)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 4:12)

성경말씀은 실제의 삶에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더 큰 감동과 깨달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단지 호기심이나 탐구심만으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17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묵상, 기도하며, 성령님과 교제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해 주시는 놀라운 비밀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anyone chooses to do God's will, he will find out whether my teaching comes from God or whether I speak on my own. - John 7:17

절대로 오류가 없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깊이가 한량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 어느 누구도 완전히 탐구할 수 없는 풍부한 진리와 완전한 지혜를 담고 있는 무한한 광산과도 같습니다. 어떤 단락을 공부하고 믿는 사람이 그 안의 기본적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그 동일한 단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의 새로운 보물을 산출할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주로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선행조건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1) 믿음, (2) 순종, (3) 연구

성경을 참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그 타당성과 확실성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를 판단해야지 우리가 성경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자신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브리서 11 :6) 만일 누가 열린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성경을 조사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을 만족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충분한 증거 즉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누가 성경의 메시지를 참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먼저 적어도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수천 번 읽는다 해도 그것이 그에게는 단혀진 책과 같습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요,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이러한 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린도전서 2:14).

But a natural man does not accept the things of the Spirit of God, for they are foolishness to him; and he cannot understand them, because they are spiritually appraised. - 1 Cor 2:14

둘째로,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바에 대해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야고보서 1:22). 이 중에서도 먼저 순종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명령은 물론 회개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서 그분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탐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요한복음 5:39~ 40)

Do not merely listen to the word, and so deceive yourselves. Do what it says. - James 1:22

마지막으로 성경 전체를 연구하기 시작하고 또 이 일을 날마다, 해마다, 일생동안 계속해야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도록 연구하라.'(디모데후서 2:15).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할수록(물론 더 많이 믿고 더 많이 순종할수록) 성경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성경이 점점 더 귀중해지고 확실해질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철저히 갖추게 하려 함이라.'(디모데전서 3:16~17)

Be diligent to present yourself approved to God as a workman who does not need to be ashamed, accurately handling the word of truth. - 2 Timothy 2:15

성경은 그 안의 여러 가지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그 모든 인성(人性)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신성(神性)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부분은 다른 부분에 빛을 던져 주고 있으므로 부분적으로 조금씩 이해하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만들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성경을 공부하는 일은 끝이 없습니다.

- Henry Morris (from www.inchristjesus.net)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성경말씀)의 기이한 것(wonderful truth)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18)

출처 :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중에서 **참조**

신들의 땅, 인도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외치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2011년 8월 6일(토)부터 17일(수)까지 인도 남부지역으로 창조과학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007년에 인도에 계셨던 한**(김**) 선교사님의 요청에 따라 이종현 선생님께서 12월 11일(화)-17일(월)에 북부지역의 도시(델리, 데라둔)에서 한인교회의 교인과 현지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신학교 학생들 등에게 창조과학 특강을 통해 도전을 던진 귀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남부지역(벵갈로르, 마이소르, चेना이)도 섬겨주십사는 요청에 따라 이종현 선생님께서 인도를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8월 6일(토) 벵갈로르의 꼬라망갈라 베델교회에서 현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장실도 없이 시멘트 바닥에 돛자리를 깔고서 천정에 매달린 선풍기 한 대에 더위를 식히느라 당황스러웠지만, 천사 같은 눈망울로 복직되는 가운데서도 동영상 을 바라보며 환호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참으로 사랑스러웠습니다.

8월 7일(주일)엔 임마누엘 한인교회 (강철원 목사님) 주일예배 때 “진화의 허구성과 창조의 증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도 주일예배 시간마다 전기가 끊겨서 마이크가 나오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창조과학 강연 동안 전기가 한번도 나가지 않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엔 남인도 신학교(South India Bible College)에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세기 대홍수”(Genesis Flood)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대홍수 사건을 40주야간 내린 비로 인한 홍수 사건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엄청난 대격변적 사건을 보고서 다들 많은 도전을 받았기를 소망합니다.



8월 8일(월)엔 김**선교사님께서 섬기시는 어린이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걸작품, 사람”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랜 기간 준비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섬기시는 선교사님과 현지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 많은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선교현장을 직접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며 경험케 하심으로 현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현지인들을 위해 힘써 기도해야함을 분명히 일깨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엔 YWAM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창세기 대홍수는 전 지구적 사건인가”라는 제목으로 나눴는데, 강연 후 많은 질문과 관심을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 위에 분명한 믿음으로 주님의 사역자들로 잘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8월 9일(화)엔 칼빈 신학교(Calvi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와 베텔 신학교(Bethel New Life Ashram(College))의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조의 증거와 진화의 허구성” 및 “창세기 대홍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부디 신학생들이 창조주이자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그저 수많은 신 중의 하나로 예수님을 전락시켜버린 인도 땅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널리 전해지기를 간구합니다.



8월 10일(수)엔 마이소르로 옮겨 저녁식사 교제를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국비장학생으로 온 무슬림 대학생들과 더불어 성경과 꾸란 속의 내용을 서로 대조해 가면서 창조와 대홍수 사건 및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날 이후로 그 학생들이 선교사님께 다양한 질문과 더불어 창조과학 웹사이트를 알려 달라는 요청도 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부디, 주님께서 그들의 귀한 영혼들을 주장해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8월 11일(목)엔 티벳촌을 방문해서 라마불교사원 등을 둘러보면서 이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 변화되기를 선교사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었습니다.

8월 12일(금)엔 마이소르 궁전과 마이소르 대학 등을 둘러본 후 기차로 첸나이로 이동했습니다.



마이소르에서 첸나이까지 기차로 이동하는 도중에 화강암(?)으로 추정되는 바위산들이 참 멋있었는데, 내려서 직접 암석을 살

펴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인도 땅에 올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면 땅의 창조와 전 지구적 심판의 역사인 창세기 대홍수 사건을 들려주는 암석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8월 13일(토)엔 도마성지를 둘러보며 변질된 기독교를 바라보며 주님의 눈물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성당 외벽에 왜 사탄으로 대표되는 ‘용’(dragon)으로 추정되는 형상을 새겨놓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엔 열방교회에서 “창조의 증거와 진화의 허구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숙소와 교회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시꺼멓게 나올 때도 있고, 짠 맛이 고스란히 느껴져 그 물로 양치질하는 것조차 쉽진 않았습니다. 첸나이의 열악한 물 사정을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한국인 및 현지인들의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소망하며 기도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8월 14일(주일) 오후예배 시간엔 “창세기 대홍수 사건”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공룡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져서 성경적 답변을 간략하게나마 드렸습니다.



8월 15일(월)에 새벽에 뱅갈로르에 다시 도착해서 정신장애아동시설과 고아원 등을 방문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나눴습니다.



8월 16일(화)엔 뼈와 관절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인도인 자매의 집을 방문해서 “창조”, “창세기 대홍수” 등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부디, 주님의 확실한 치유의 손길과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임해서 그 자매를 통해 그 가정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8월 17일(수)엔 한국인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성경고고학”, “한국인의 기원” 등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창조과학을 접하셨던 선교사님들도 선교지에서 다시 듣게 되니 더 깊이 다가온다며 선교도구로 창조과학을 활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약 14일에 걸친 인도 창조과학 선교여행 동안 일부 지역의 좋지 않은 전기 사정에도 불구하고 강연 동안 한 차례도 전기가 나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기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행사와 이동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인도 음식과 선교사님들께서 정성껏 준비해 주신 한국 음식 등을 맛있게 감사히 먹었습니다.^^*

인도 땅 곳곳에서 귀하게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도 땅에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선포되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인정케 되어 성령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주님의 기쁨의 자녀들로 인도의 귀한 영혼들이 잘 성장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걸음마다 동행하시며 풍성하게 누리고 도전받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창조**

탐의 이야기 (Tom's Story)

“보트 타러 갑시다!” 이렇게 부르는 소리는 내가 안내하는 여행 동안 그랜드캐니언의 암벽에 울려 퍼지는 신호입니다. 이 소리에 사람들은 강 아래를 향해서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가이드로 수년을 지내는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을 그랜드캐니언, 즉 이제 하나님의 참된 피조세계의 경이로움 중의 하나로 믿고 있는 이곳으로 안내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랜드캐니언에 대한 애정은 1980년에 처음으로 콜로라도 강으로 여행을 갔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해, 파트타임 가이드로 일하기 시작했고, 1983년엔 그랜드캐니언에서 일하기 위해 회사생활을 그만뒀습니다.

처음 15년 간, 오랜 기간의 침식이 수차례 일어나면서 수백만 년에 걸쳐 입자들의 퇴적작용인 진화(동일과정)를 통해 그랜드캐니언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랜드캐니언의 심오한 중요성은 그때까지도 나의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고의 대변혁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1994년 7월 어느 날, 어떤 여성이 애리조나 주, 마블캐니언(Marble Canyon; 역주-대리암협곡)의 비행장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그랜드캐니언 래프팅을 하러 가는 중이었고, 나는 그녀의 가이드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녀가 나를 가이드(인도)하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세계관은 그녀로 인해 완전히 뒤집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랜드캐니언에 ‘간히지’ 않았다면, 아마도 서로에게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볼 기회를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명백히 우리의 만남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성이 내게는 너무나 ‘종교적’으로 비쳤습니다. 그리고 내 경우엔, 말하자면 그녀가 머리에 그리고 있는 신사라고는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크리스천이 아니었기 때문에, 술도 마셨고, 종종 폭주도 했으며, 음, 나의 말도 그다지 경건하지 못했으며,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둘 다가 지닌 그러한 몇 가지 ‘사소한 결점’을 지나쳐 가도록 이렇게 매우 신비로운 장소에 충분히 있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강 여행 둘째 밤에, 그녀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지옥에 갈 나의 영혼의 구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콜로라도 강기슭, 별 아래에서 우리가 나눴던 삶의 의미에 대한 매우 철학적인 대화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나의 관점에서 삶의 의미란 신나게 노는 것이었던 반면, 그녀의 관점은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9일간 함께 지내는 동안, 그녀는 상냥하게 복음을 계속해서 나눴고 나도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진화론자들로부터 들었던 것과는 달리, 나는 모든 현실로부터 하나님을 없애고자 추구하는 진화론적 사고에 빠져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고, 삶에서 절대적인 진리란 없으며, 우리 자신의 규칙을 우리가 정하며, 이 땅에서의 삶만이 전부일 따름이라는 이러한 논리의 확장이 내 생활방식의 배경이었습니다.

가이드로서의 나의 삶은, 비록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과정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을 만들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랜드캐니언에 있는 절묘하고 다양한 암층들이 전적으로 자연적 지질작용에 의해서 나타났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대홍수 이야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단지...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 여행 후에, 성경책을 읽고 그것을 믿었던 그 여성이 나에게 성경책을 보냈는데, 그 성경책은 파키스탄의 히말라야 산맥까지 나와 더불어 세상의 반을 여행했습니다. 거의 영하 18(화씨 0)도의 추위 속의 3,800미터(12,500피트) 높이에 있는 자그마한 텐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에 따라 나의 세계관은 서서히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추위가 그 작은 공간을 침범하는 가운데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서 읽었던 것을 뚜렷이 기억합니다. 몇 시간이나 성경책을 읽으면서 보냈고, 나의 소굴을 조금이나마 따스하게 하려고 작은 초에 종종 불을 붙였습니다. 몇 번이고, 성경을 집어 들고서 읽은 다음 내려놓은 후에 이 책에 있는 진리(truth)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성경의 이 하나님이 정말일까?

나의 시선은 계속해서 그 여성이 성경책에 쓴 기도문에 가 닿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제가 잘못을 저질렀기에 완벽함에 이를 수 없음을 압니다.

저의 죄로부터 기꺼이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부디 제 삶에 오셔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을 제 삶의 주님이자 구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가장 귀한 분으로 영접합니다.

나는 이 기도문을 수십 번이나 읽었고 마침내 마음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정말로 그렇기를 바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10월에,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파키스탄에서 돌아왔습니다. 나는 복음을 믿으며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자 구주로 받아들이는 분명한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러한 선택이 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나의 머리에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수십억 년의 점진적인 변화의 산물이라는 믿음인 삶에 대한 동일과정설적 관점은 기원에 대한 성경적 설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랜드캐니언의 따스한 달 밝은 밤으로부터 히말라야 산맥의 추위 속에서의 하나님(Deity)과의 만남까지 모든 것의 의미를 끝없이 생각하면서 나는 삶을 훨씬 다른 방식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나를 해마다 이곳으로 이끄는 장소인 그랜드캐니언을 바라보는 방식도 또한 가장 뜻 깊은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변화를 단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5년 간, 나는 그랜드캐니언이 형성된 것에 대해 진화론적 모델을 가르쳤지만, 그것은 결코 완전히 이치에 닿지는 않았습니다. 이 모델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야만 했습니다. 창조모델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이런 저런 문제들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조모델이 훨씬 더 이치에 닿았고, 한결 믿기 쉬우며, 수백만 년과 분자에서 사람으로 진화되었다는 이론보다 더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줬습니다. 마침내, 나는 창조보다 진화를 믿는데 더 커다란 ‘믿음’이 요구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랜드캐니언 가이드들 중 극히 소수만이 여행 장비 중에 성경책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은 위로 1,500미터(1마일) 치솟은 절벽이 있는 화강암 협곡(Granite Gorge)을 따라 내려가는 동안 창세기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진화론적 모델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창세기의 타당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비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야고보 사도처럼, 나는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간주합니다. 내 주변의 환경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게 됨으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유로워졌습니다. 심지어 그랜드캐니언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삶은, 이 땅에서의 삶과 내세의 삶 모두가, 내게 더욱 큰 의미를 지닙니다.

내가 믿듯이, 그랜드캐니언이 진흙과 물에 의해 때맞추어 그것들이 굳어짐으로써, 수조 개(trillions)의 화석화된 피조물을 가진 으스스한 죽음의 박물관일 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또한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며 믿을 수 있는 것임을 되새겨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창세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대홍수가 일어났다면, 창세기의 심판주도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계시되었듯이 대속주로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오실 것입니다.

나는 오늘날의 진화론적 철학에 너무나 사로잡혀 있는 지질학과 다른 분야의 학문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랜드캐니언은 죄와 한 때 죄로 인해 일어났던 것의 상징물입니다. 그것이 그곳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심원한 진실은, 내가 강물을 따라 하나님의 거대한 대예배당을 가로질러 또 다른 여행으로 앞으로 이동할 때 항상 겸허해지듯이, 나를 낮아지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랜드캐니언을 여행할 때, 캐니언이 그곳을 지나가는 마음을 향해 손길을 뻗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삶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를 맺는 법을 알고 싶다면, 그 여성이 내 성경책에 써준 기도문을 기도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성경이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inerrant) 말씀임을 믿고 가르치는 교회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가지 'F'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를 찾으도록 권면합니다. 누군가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진리의 양식을 당신에게 '공급하는'(Fed) 교회이어야 합니다. 당신에게 '적합하고'(Fit in) 다른 믿는 이들과 '교제'(Fellowship)를 즐길 수 있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길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Fruitful) 교회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영원을 어디서 보내게 될 것인가를 결정지를 뿐만 아니라 삶과 그랜드캐니언을 바라보는 방식도 바꾸게 될 삶을 변화시키는 결단입니다.

아, '그 숙녀,' 음, 삶의 진정한 의미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라고 한 그녀가 옳았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녀는 내가 진리를 보는 것보다 조금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네!'라는 대답을 얻기까지 약 1년이 걸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파울라(Paula)이고 우리는 그 다음 해인 10월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신 그 날에 결혼을 했습니다. 내 삶에 빛 되신 주님을 전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이 책을 그녀에게 바칩니다.

1997년, 파울라와 나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그랜드캐니언의 장엄함을 나누는 캐니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성경적 '선글라스(Son glasses)'를 쓰도록 격려하고 성경의 권위를 가장 첫 구절부터 받들도록 돕습니다.

자, 이제 우리와 함께 주님의 작품을 직접 보기를 바라며 **“보트 타러 갑시다!”** 창조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kr)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이메일 주소(creation@creation21.or.kr)로 요청사항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달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